

2000년도 협회추진 주요사업 실적 결과

■ 제1차 이사회 개최

우리 협회는 지난 1월 12일 삼성 서울연수원에서 2001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. 올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이사회에는 최석근 회장을 비롯하여 양승창, 이영형 이사, 이창순 감사가 참석하였으며 전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금년도 주요사업계획(안), 적격심사 개정(안), 정기총회 일정, 결원 임원보선 및 추천권 등이 주요 의제로 상정되었다.

■ 제 2차 정기총회 일정 확정

일시 : 2001년 2월 23일 금요일

※장소 및 시간은 회원사에게 추후 통보 예정임.

■ 적격심사기준 개정 요구안 제출

우리 협회는 지난 1월 15일 에너지관리공단에 적격심사기준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. 이는 현재 공공기

관의 ESCO사업 입찰시 적용되는 '공공부문 ESCO사업 심사 기준(산업자원부 예규 제 6, 7호. 2000.2.8)' 이 시행상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기준이 개선될 경우 회원사들의 사업추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.

이번에 협회가 제출한 개선안은 4가지 항목에 걸친 것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사업경험과 채무비율의 동시평가문제, 사업경험 평가상의 문제, 사업효과 평가시 투자비회수기간, 상환금액, 상환기간, 에너지절감률간의 모순문제, 종합평점 조정문제에 관한 것이다.

개선안은 현행 배점방식의 1/2축소 조정, 일정기간 동안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과 사업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평가제 도입 및 사업투자 금액과 사업건수 비중의 차등화, 평가항목의 단순화, 종합평점의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■ 사업실적증명서 발급간소화 요청

공공기관 ESCO사업 입찰시 필수적 구비서류 중 하나인

번호	사업명	세부추진사항	진행일정
1	현행 제도의 문제점 조사·분석 및 대책 수립, 대정부건의	ESCO 사업관련, 법규, 정책, 금융제도 등의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한 문제점의 조사·연구 및 건의	<p>▶ 업계의 애로사항 건의</p> <p>① 1/27 산자부 <ESCO 사업활성화를 위한 건의안>제출(주요내용) ㉠ 금리인하(3% 이하) ㉡ 공단지점대출(은행거래관련 ESCO) ㉢ 신용대출, 팩토링제도 활성화 →취급금융기관 확대 필요 ㉣ 동일지당 한도폐지 또는 상향조정 ㉤ 대기업계열사 한도폐지 ㉥ 공공기관 사업화 촉진 필요 ㉦ ESCO 사업성과 평가의 필요성 등</p> <p>② 산자부, 공단 주최의 ESCO사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(6/7) - 업체의 부채비율 증가 - 자금지원제도의 문제(지원대상 범위의 확대, 대출금리의 인하, 동일사업지당 지원한도 확대 등) - 적격심사기준의 개정 - 투자사업의 위험성 완화 등</p> <p>③ 지원자금 증액 노력 - 연중 고갈된 ESCO자금의 증액 요청 - 산자부 등에 공문 및 직접 방문 협의로 지속적인 사업원의 필요성을 역설, 관철(9-10월) (650억 →894억 원)</p> <p>④ 기타: 요로에 ESCO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전달 및 시정 촉구(연중) ⑤ 표준산업등록: ESCO사업 고유의 성격과 기능을 인정받음으로써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사업화 필요(산자부에 구두 요청 →당위성 인식, 부내 의견 교환중) ⑥ 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업무 →공단 업무를 ESCO협회로 이관 추진(산자부에 구두 요청) ⑦ 협회지, 기타 매스컴을 통한 의견의 지속적 개선</p>
2	질약기기 공동 구매 시범사업	1)대상 기기선정 →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수렴(설문지) · 종합 2) 구매 · 보증 방법 결정	1) 5/17~7/4 2), 3) 보류

사업실적증명서 발급이 간소화 될 전망이다.

ESCO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'일괄발급(안)'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.

지금까지 사업실적증명서는 공단에서 업체의 요청시 매번 전분기 기준으로 1부씩만을 발행, 교부해왔다. 업체들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공단을 출입해야하는 등 교통상의 문제와 사본 불인정에 따른 행정상의 불편을 겪어왔다.

따라서 실적증명서의 일괄발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

ESCO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매분기별로 1장씩의 증명서(원본)를 발급, 교부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참여 업체는 원본대조필의 사본을 제시할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또한 공단측에서는 ESCO제도 종합개선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자기자본 투자사업 실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ESCO협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건의를 해왔다.

번호	사업명	세부추진사항	부진 사유 및 대책
		3) 회원사별 공동구매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설문조사 및 상담결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원사들이 참여 의사가 미온적이어서 당장 실시 효과가 없을 것임 - 설문조사 결과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요자: 참여희망사 적음(24개사중 8개사) · 공급자: 참여희망사 적음(8개사중 3개사)
3	공공기관의 사업 활성화 촉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공공기관에 협회 활동계획 안내(중점대상기관: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회지 및 공문 발송) 2) 사업추진의욕고취를위한사업설명회실시(요청시) 3)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작가업, 사업방향 주도 기획, 진단, 제안 및 입찰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교육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교육부(학교시설환경과) / 각급교육청, 대학교에 사업 실시 권유 ② 협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부 및 각 대학에 협회지 발송 ○ 각급 교육청의 사업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천북부교육청: 내년도 사업 실시 위한 진단, 계획 지원 2) 행정자치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시도 자치단체 에너지 담당부서장에게 협회지 발송중 3) 공군 제 3751부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명사업 진단 보고서 제출 4) 포항제철: 교육지원 요청(10월)을 받음 → 협회의 정기적인 지원은 힘드므로 주제별 대응기로 함.
4	전문위원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위원후보 선정, 위촉 - 회원사, 유관단체 · 기관의 추천에 의거 2) 위원회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소집 및 구성(위원장 선출, 운영방안, 의제 확정) 3) 위원회 활동(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고문단 구성: 9/4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위원회 대신 사업관련 각 부문별 전문가 6명으로 고문단 구성, 발족 (에너지정책, 제도, 기술, 및 경영, 회계, 법률 부문) - 고문 위촉식: 9/26 - 활동방안: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문, 조언
5	에너지 진단 전문가 양성 과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과정개설 협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너지기술연구원, 공단 등과 과정 개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공감대 형성, 협조 의뢰 2) 교육과정 확정 및 강사진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교육내용, 기간, 비용, 장소 등 ② 공단, 에이전, 회원사, 기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강사진 추천 3) 교안 제작 4) 교육 실시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홈페이지, 협회지(4호 이후 계속) 관련신문, 잡지 등 5) 교육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기초과정 1회 실시: 7/10~14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회 회원사의 임직원 대상 기초 3과정 교육 실시 ① 전기: 7/10~12(3일) ② 열: 7/12~14(3일) ③ 종합: 7/10~14(5일)

* 기재된 내용은 지면상 추진 실적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입니다.